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승리를 근본적으로 하는 승고한 혁명정신이며 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내려는 열렬한 조국애이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백혈불굴의 의지로 충탄된 결연한 투쟁정신이다. 세상에 이보다 강한 정신이 있겠는가. 전쟁은 힘과 힘의 맹목한 충돌이지만 승전은 언제나 자기의 것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고 신념이 강한 편에 있으며 이것은 첨단기술이 총발동되는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달라질 수 없다. 정신력의 강자가 싸움에서도 이기는 법이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공화국군대의 장대성과 백승의 원칙의 하나는 정치사상적 우월성이다. 공화국군대는 수령경사용위를 생명으로 여기고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반드시 승리와 기적을 창조해내는 가장 혁명적이고 영웅적인 군대이다. 공화국군대의 이러한 모습이자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령도자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는 전체 인민의 모습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가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것을 지켜 죽어도 불사하고 나선 이런 강한 군대와 인민이 있어 이 땅에서는 승리의 7.27이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적인 대전에서 조선은 어제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있으며 래일에도 승리할 것이다. 7.27은 영원한 조선의 승리이다. 왜 그러할까. 그것은 공화국에 오늘의 반미대전과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절세위인, 천출명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

하며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함께 전승세대가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투쟁기풍을 영원히 이어갈 열의에 넘쳐 있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고 령도자와 일심일체를 이루고 군대가 있어 조선은 더욱 강하고 승리의 력사도 영원하다. 조국수호정신은 수령경사용위정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격난속에서 승리의 신심도 높이 용기백배하여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는 속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7.27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날, 환희의 명절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에 있어서 령도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쟁이었으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게는 참패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는 진리를 력사의 갈피속에 뚜렷이 새겨넣은 전쟁이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저들의 방대한 무력과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인 조선전쟁에서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력은 수직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공화국은 세계전쟁사상 일찌기 알지 못하는 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삶의 보금자리인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걸사적으로 지키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떨치거나 침략자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적공세를 막아내고 자기의 령도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해낸것은 위대한 수령의 힘을 받는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 것을 똑

똑 보여준 력사적장거이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인민전쟁사에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투철한 조국수호정신과 영원한 승리전통을 마련하였다는 여기에 7.27이 가지는 중대하고 심원한 의미가 있다. 공화국에서 7월 27일은 국가의 뜻깊고 경사로운 명절들 가운데서 승리를 기념하는 류타의 궁지스러운 명절로 되고 있다. 이날을 맞으며 로병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해마다 성대히 진행하고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가. 단숨에 지나간 영웅시대의 항전사를 기념하고 돌이켜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전승세대가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불굴의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사회주의건설에 구현함으로써 막아나서는 모든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과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69년이 지나간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 자존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범죄적인 전제시압살정책은 조선전쟁사나 지금이나 후로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하여 지구상 가장 격렬한 조미대전쟁은 세계를 격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시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어 그 정신과 승리전통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와 기적만을 창조하게 하시는 절세위인,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공화국군대와 인민이 지난 세기 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세계전쟁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투철한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승리를 가장 값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공화국은 그때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고 반면에 미국은 수많은 전쟁에서 한번도 저분적이 없었다는 제국주의 우두머리였다. 거기에서 미국은 저들에게 추종하는 수많은 국가무력들까지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은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놓여있다. 미국과 남조선피괴침략자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반공적으로 처물치면서 금강을 도하하고 불비 쏟아지는 락동강을 건널 때 인민군전사들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수령님 찾아주시 귀중한 내 조국을 한복숨바쳐 지켜내려는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쟁정신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었다. 하기에 인민군용사들은 고풍한 제도와 자기의 고향, 자기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는 원수에 대한 증오로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저린 희생의 아픔을 억척스럽게 이겨냈으며 무비의 대충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잔인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들에게 투로죽음을 안겼다. 이 자랑스러운 전승세대들과 그들이 창조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이 있어 공화국은 전후에도 겹쌓이는 도전과 난관들을 뚫고 헤치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바로 이 위대한 정신, 승리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시어 위대한 위대한 전승정신을 해마다 의의있게 기념하도록 은갖 조지를 다 취해주시었다. 전승세대들의 넘과 투쟁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고 기억해나가도록 하시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전승세대의 위훈을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 세워주시어 전쟁로병들을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 《전리마의 기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2)

《보복》에는 《보복》으로

1968년 1월 23일 해상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은 공화국영해에 침입하여 비법적인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알려진것처럼 《푸에블로》호는 수많은 나라들의 연해를 항행하면서 현대적인 전자탐지기와 각종 감시기구를 리용하여 정탐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공화국 영해에서 덜미를 잡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한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었다고, 간첩선이 아니라 해양관측선이라는 허언을 늘어놓으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행동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은 새벽에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2~3일 사이에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수많은 항공모함들과 순양함, 구축함들을 조성선봉에 들이밀었다. 이와 함께 수만명의 해군예비역군인들의 퇴역을 중지시키고 미국본토의 공군부대들에 경계태세를 명령하였으며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 300대이상의 군용기를 집결시켰다. 그리고 오키나와로부터 분사식전투기 2개 대대와 수많은 해군함정, 대공포들을 남조선에 새로 끌어들이었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피괴군도 전쟁전야상대에 들어갔다.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그 승무원들을 단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북조선의 한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에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수많은 항공모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참패하고 정전협정에서 명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한 말인 동시에 미국의 비명소리이다. 조국해방전쟁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약의 제국이었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 것은 미국이었다. 잘못된 내가지 선택 ❖ 《잘못 고른 시간》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망국의 설움과 죽음의 고역을 겪은 공화국인민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존엄과 자주권을 목숨과도 바꿀수 없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었다. 해방된 땅에서의 꿈같은 5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고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참된 삶이고 찬찬한 미래의 약속이었다. 이것을 짓밟으려고 미국이 침략의 불을 지른 1950년 6월 25일은 분명 《잘못 고른 시간》이었다. ❖ 《잘못 고른 장소》 《불의라격》과 《속전속결》, 《크리스마스총공세》,

《네가지 잘못된》으로 선사받은 참패

《하기 및 추기공세》, 《신공세》... 참으로 미국은 공화국을 삼키려고 별의별 전쟁수법을 다 썼다. 그러나 《이집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었다》는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 것은 미국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월미도의 3일간, 장진호반의 약동, 1211고지의 《상심령》, 《함정골》... 그야말로 전조선방이 미군에게는 무덤이었고 《지구》로 되었다.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것은 분명 장소를 잘못 고른 우둔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 《잘못한 전쟁》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이 가장 잘못한것은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를 이끄는 최고령수가 어떤분이신가를 몰랐다는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를 쳐부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그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할무쌍한 전략술,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미국은 력사상 가장 수직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명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오만 무례했던 미국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공화국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당

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있었다. 바로 이때 조선에서 울려나온 폭탄과 같은 선언은 세계를 뒤 흔들어놓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천명하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대로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불리워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그 어떤 위협과 압력에도 주저없이 단호히 맞서나가는 공화국인민과 군대의 도도한 기상앞에서 미국은 무릎을 꿇고 저들의 사형